

A: 로스쿨 재학 중인 성적 좋은 학생.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이성과 논리로써 바라본다. C를 미래의 부인으로써 생각하고 있다.

B: A의 룸메이트. A와 친하지만 멍청하고 감정에 쉽게 이끌린다. 디아블로에 미쳐있다.

C: B의 여친. 매우 예쁘다. 많은 남학생들의 대쉬를 받는다. 그러나 B처럼 멍청하고 감정에 쉽게 이끌리며 디아블로에 미쳐있다.

D: 남자. 아무 비중 없다.

-플롯-

1. A가 집을 나선다. 이 과정에서 A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걸 보여준다.
2. A, B, D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B는 소맥을 마신다. B는 C와의 약속이 있지만 계속 달린다. 그러다 결국 C한테 전화가 오고, 취한 상태로 허겁지겁 일어난다. 남은 A와 D는 대화한다. A는 C가 대체 왜 B와 사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C가 왜 자신과 사귀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왜 B처럼 디아블로 덕후와 사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1년 전에 디아블로에 미쳐있던 B가 A에게도 디아블로를 권해서 A도 디아에 빠져서 학교 직전까지 갔었다는 얘기도 한다. 그 때 마침 생각난듯 C도 디아에 미쳐있다고 D가 말한다. 그리고 B와 C가 중전에서 디아를 하다가 만났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3. 늦은 밤에 A가 자취방으로 돌아온다. B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울고있다. 디아블로3 베타테스트 신청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때 B는 A에게 너도 확인해보라고 한다. A는 자신도 예전에 디아3 베타테스트를 신청했던 걸 기억해낸다. A는 베타테스터로 뽑혔고 계정을 받는다. B는 부러워서 죽을려고한다. A에게 계정만 나에게 주면 내 모든 것, 영혼이라고 주겠다고 한다. A는 계정을 주고 대신 C를 달라고 한다. B는 승낙한다.
4. A와 C의 첫 데이트. A는 생각보다 매우 무식하다. A는 집에 와서 C를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먹는다.
5. 강의실. A는 논리학 수업을 듣고있다. 마지막 수업이다. 교수가 논리학은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A는 무엇인가 영감을 얻었다.
6. 두번째 데이트. A는 C에게 오늘부터는 논리학에 대해 얘기해주겠다고 한다. C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일단 좋아한다. 가르치는 일은 매우 고달프다. 하지만 A는 C에게 논리적 오류에 대해 계속 강의한다.
7. 이런 데이트는 몇번 더 이어지고, 어느덧 마지막 강의이다. 이 때 처음으로 C가 A의 강의에 대해 알아듣는다. A는 감동하고 드디어 C가 자신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8. A와 C가 만나고있다. A는 오늘은 논리학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로맨틱한 고백을 한다. 그러나 C는 지금까지 A에게 배웠던 논리적 오류로 고백을 비판한다. 화가 난 A는 왜 못사겨주냐고 묻는다. C는 B와 사귀기로 했다고 말한다. A는 B를 욕하면서 자신이 B보다 못한 논리적인 이유 하나라도 대보라고 한다. C는 B가 디아3 베타테스트 계정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9. 중전에서 과제하는 A.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 디아3를 같이 하는 B와 C. 행복해보인다. 크레딧이 올라간다.

SCENE#1. A의 자취방

A가 집을 나설 준비를 한다. 복장도 머리도 매우 샤프하다. 그가 로스쿨 학생이라는 걸 보여준다.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그의 미래 씬으로 바뀐다.

SCENE#2. 법정

A는 법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있다. 정장차림이고 마지막으로 세수를 한 다음에 법정으로 들어간다. 로펌 상임변호사 명찰을 차고 있다. 사건 파일을 넘겨본다. 다국적 대기업간 특허 분쟁 소송이다. 그가 변호하는 장면을 중간중간 스킵해가면서 보여준다. 판사가 A측의 승소를 판결한다. 법원을 나가면서 기업관계자는 A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A는 약속한 성공 보수 잊지 말라고 한다. A는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무도 없다.

SCENE#3. A의 자취방

A가 자취방 현관에 서있다.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표정. 집을 나선다.

SCENE#4. 술집

A, B, D 가 맥주를 마시고 있다. B는 반 팔라상태.

B가 소맥을 만들다가 소주가 다 떨어진다.

B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D
야 너 어찌자고 그렇게 달려. 곧 만나러 가야된다며.

B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마셔야지.

D
너 이미 반쯤 갔어. 벌써 10시 반인데

B
시끄러. 나보다 주량도 안되는게. 짬이나 하자.

A, B, D 건배하고 마신다. B가 벌컥벌컥 마시는데 A는 한 모금만 마신다.

B
야, 너 또 빼냐. 여친 만나러 가는 나도 달리는데

A는 B를 한심하게 쳐다본다.

A
난 과제해야되.
야 진동 올린다. 전화나 받아

B의 핸드폰이 울린다. 여친한테 걸려온 전화다.

B
(갑자기 놀란 표정)
몇시야 지금?!

D
10시 반..쯤 넘었네, 33분

B
아....나 또 늦었네. 야 그럼 말을 해줬어야지! (짐을 챙기며)

D
(억울한 듯이) 그래서 내가 말 해줬자나

B
시끄러! 나보다 주량도 안되는게. 암튼 나 간다 빠이.
(전화를 받고) 어어 거의 다 도착했어.

D
(어이없는 표정)

A
야 돈은 내고가.

B가 나가는 소리

D
잔소리 또 바가지로 듣겠네

A
분명 내 룸멘데 볼때마다 쟤 신기하단말이야.

D
뭐? 팔라되서 객사 안한거?

A
C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나도 아니라, 쟤가,
그런 여자를 여친으로 사귄 수 있는거지.

(잠시 침묵)

마시자.

B가 주문했던 소주를 짠하고 마신다

D
너 C 좋아하냐.

A
(고개를 끄덕인다)

D
너 같은 놈이 여자를 좋아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A
(끄덕끄덕) 꽤 됐어..

D
너도 별 수 없이 남자구나.
평생 민사법 책이나 보면서 흥분할 줄 알았는데.
하긴 C가 섹시하긴 하지. 웬만한 남자라면 한눈에 반하니까.
걔한테 대쉬받는 것도 일상일꺼야 아마.

SCENE#4-1. 길거리, 회상

D의 잠시 회상씬. C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차인다.

SCENE#4. 술집

D
마시자.

A와 D 째하고 마신다.

A
그게 아니야.

D
너가 민사법을 보고 흥분한 적이 없다고?

A
아니 그 말이 아니라.....내가 C 좋아하는거.
그냥 단순히 걔가 예뻐서라던가 썩시해서라던가 그렇게 아니야.

D
민사법이 더 썩시하겠지

A
(맥주 한모금 하고)
난 그렇게 감정적으로 C를 원하는게 아니라고.

D
사랑하긴 하는데 감정적인게 아니라...또 뭘소리야 이걸

A
내 누적 평점이 지금 4.28 이야.
그것도 서울대 로스쿨에서 말이지.
몇 년 뒤면 수많은 로펌들이 날 데려갈려고 할꺼라고.
변호사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뭘지 알아?

D
썩시한 비서?

A
우리 선배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말이지,
동문회나 홈커밍 데이 같은 거 할 때 그 선배들 오자나.
근데 그런데 오는 선배들은 다 이쪽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라구.
어디 고법 판사, 검사부터 국제 변호사까지 있어.
뭐 내 친구들이야, 특히 B말이야, 그런 선배들 오면
어떻게 술이나 얼어먹을까 궁리나 하지만 난 아니야.
\인맥 쌓는건 기본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사실 선배들 그런 데 오면 다들 자기 성공담밖에 이야기 안하거든.
암튼, 그 선배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거야.

D
그거 되게...변태갈네.

A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성공한 변호사들은 모두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부인이 있지. 이전 거의 예외가 없다구.
내말은, 그러니까 귀남적으로 변호사들이 성공하려면
그런 부인의 내조는 필수적이라는거야.

D
(한모금) 그래서 너가 C를 좋아한다는 거야?

A
(끄덕끄덕, 한모금) 그래서 내가 C를 원하는거지.
C를 봐. 완벽하잖아.

SCENE#4-2. 길거리, 커피숍

C가 걷고있다. 커피숍으로 들어간다.

A
(나레이션) 아름답고,

C가 커피를 마시고있다.

A
(나레이션) 우아하고.....

C, 폰을 꺼내서 학점을 확인한다. 평점 1.71

SCENE#4. 술집

A
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정도면 그녀를 지적이게 되도록 할 수 있다구.
아무튼 핵심은 그런 여자는 나랑 사져야지
B같은 학고가 일상인 디아블로 중독자 옆에 뒤서는 안돼.

D
흠 글썽 만약 너가 디아블로를 했다면

A
(말을 끊으며) 옛날에 해봤어. 그 망할 놈이 하도 같이 하자도 보채가지고

SCENE#4-3. A와 B의 자취방
새벽에 A와 B가 디아하는 모습.

B
야 성적나왔대.

A는 폰으로 성적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었다.

B
야 너 피 째인다.

SCENE#4. 술집

A
일주일 내내 빠져살다가 입학하고 처음으로 4.0도 못 찍었다.
B 때때 C도 디아 할지 걱정이야.

D
C 원래 디아 좋아했어.

A
뭐?!

D
B가 말 안해줬나.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SCENE#4-4. 중앙전산원

B와 D가 앉아있다. D는 과제를 하고 있고 B는 디아 중

D
쪽팔려 좀 꺼라.

B
아 집에 컵 고장났어.
(실수로 D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너 이어폰 있...

그 쪽엔 C도 디아를 하고 있다. 서로 눈이 마주침.

SCENE#4. 술집

A의 황당해하는 표정.

SCENE#5. A와 B의 자취방

A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B가 노트북 앞에서 슬퍼하고있다.

A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취한 상태로 여친만나러 가면 당연히 까이지.
안 봐도 뻔해. 이번엔 또 얼마나 잔소리를

B
(중얼거린다) 베타테스트

A
베타테스트?

B
디아블로 3

A
아 설마 오늘이

B
디아 3 베타테스터 발표날이다...

B의 노트북 모니터에는 블리자드로부터 탈락 메일이 와있다. A는 한심하게 바라본다.

B
베타테스터 계정 살려면 20만원이 필요해.
그런데 난 바보같이 교재 사느라 내 생활비를 탕진했어.

A
그거 참...바보같구나.

B
넌 어떻게 됐어?

A
나?

SCENE#5-1. A가 디아에 빠져있을때 A도 B 따라서 디아3 클베 신청을 한 회상씬

A
아.....난 확인 안해봤는데.

B
해봐 당장 당장!

A가 메일 확인을 하는중. B는 침대에 걸터앉아있다.

A
내 메일을 뭐로 했더라. 다음이었나

B
네이버

A
그런건 잘도 기억해,

B
누구라도 나에게 클베 계정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

A
무엇이든지?

B
무엇이든지. 영혼과도 바꿀수 있어.

A
(의미심장한 눈빛)

B
내가 호구였지. 계정을 하나만 신청하는게 아니었어.
가족, 친구, 지인들 다 동원해서 명의도용을 해서라도 수십개는 신청했어야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당첨됐겠지. 안그래?

A
글쎄, 난 하나만 신청했는데도 당첨됐는데.

B, 노트북 앞으로 달려온다. A는 튕겨나간다. B 매우 놀란다.

B
(A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아 너 진짜, 내가 너, 진짜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 사기꾼 자식. 야 진짜 사람이, 진짜 신청은 같이하고 당첨은 니 혼자 되냐
아오 진짜, 야 담배. 담배 어디됐어. 담배 어디됐냐고!
(식탁위에 담배를 찾음)

A
야

B
(담배를 던지면서)
아 왜

A
(웃으며)
즐거. 제정 준다고.

A 식탁에 앉아있고 B 라면을 끓여서 바친다.

A
나 계란 넣은거 안먹는데

A 식탁에 앉아있고 B 다시 라면을 끓여서 바친다.
B는 디아3를 하고 A는 라면을 다 먹는다.

A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B
(플레이하며, 건성으로) 말해봐

A
C말이야.

B
(플레이를 멈추고)
C?

A
C

B
내 여친?

A
니 여친.

B
...달라지는거야?

A
달라지는거지.

B
(A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서 쳐다본다) 좋아. 거래는 성사됐다.

SCENE#6. 레스토랑

A와 B 스테이크를 먹는중

A
요즘 광우병 문제 때문에 걱정되지 않으세요?

B
이건 소고기잖아요. 광우병은 돼지가 걸리는거죠.

SCENE#7. 커피숍

C
난 시나몬 향이 정말 좋아.

A
아 제피 좋아하는구나.

C
아니, 제피말고 시나몬.

SCENE#8. 영화관

C
저 사람이랑 아까 그 여자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지??

A
아니 그게 시간구성이 거꾸로 되가지고

C
무슨말이야.

A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이랑 그 남자랑 같은 사람이니까

C
뭐?!

SCENE#9. 강의실

D
어제 어땠어?

A
(피곤한듯) 음 다시 B한테 돌려줄까 고민중이야.

D
하루만에?

A
처음엔 C가 그냥 생각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만나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거같애.

A 책상위에 펼쳐져 있는 논리학 교재를 내려다본다. 교재에는 논리학은 사고에 대한, 사고하는 법에 대한 학문이라는 말이 적혀있다.

A
(한숨)

D
아, 근데 B는 어디있어?? 수업 안온대??

SCENE#10. A와 B의 자취방.

B가 노트북으로 디아 3 플레이 중.

SCENE#11. 데이트 장소 (벤치가 있는 공원)

A
오늘은 뭔가 좀... 너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꺼야.

C
(기대에 차서) 뭐에 대해서?

A
논리학.

C
(잠깐 생각하고, 흥미로운 듯이) 그거 괜찮네.

A
논리학이란 (헛기침) 사고에 대한 학문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사고하려면 그 전에 논리학의 흔한 오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C
(웃으며)
더 얘기해봐

A
우선 제일 단순한거, 흠 '단순화의 오류' 에 대해 얘기해볼께.
예를 들면 이런거지. 운동은 좋다.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두 운동을 해야한다.

Insert: 조깅하는 남자

C
맞는 말이야. 운동은 좋은거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잖아.

A
그게 바로 오류야. 무조건적인 일반화라구.
보면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이 안좋아.
의사들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처방한단 말이지.

insert: 달리다가 피토하며 쓰러진다.

A
그러니까 운동은 대개 좋다, 라거나 운동은 대부분에게 좋다 라고 말해야 되.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거지. 알겠어?

C
모르겠어 ㅠㅠ (웃소매를 잡아당기며) 근데 재밌다. 더 해봐

A
(작은 한숨) 그럼 이번엔 ‘상반되는 전제’ 를 말해볼께.
신은 전지전능 하잖아. 만약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도 있겠지?

Insert: 신 옆에 바위가 평하고 나타난다.

C
물론이지

A
그런데 신이 진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바위를 들 수 있어야되

insert: 바위를 드는 신

C
(당연한듯) 그렇겠지.

A
그런데 그 바위는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데?

Insert: 바위에 깔려죽는 신

C
그거 좀 이상한데

A
당연하지. 애초에 전제가 서로 상반되었단 말이야.

C
너 그런거 더 알고 있어? 들수록 재밌는데.

A의 한숨을 클로즈업. 그리고 개와 A가 벤치에 앉아있는 풀샷

A
이번엔 ‘근거없는 비난의 오류’ 야.
예를 들어서 철수를 야구장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 애랑 같이 갈 때마다 우리 팀이 지니까 같은 거야.

C
나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
수영이라는 애데, 같이 LG팬이거든.
근데 항상 개랑 같이 갈 때마다 엘지가 진단 말이야.

Insert: 엘지 유니폼입고 응원하는 수영. 전광판에는 LG가 1회 초 8:0->9:0로 지고있다.

A
C, 그건 오류야. 수영인지 뭔지하는 애는 엘지가 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너가 수영이가 와서 엘지가 졌다는 핑계를 대면
그건 근거없는 비난의 오류를 저지른거야.

C
다시는 안그렇게 ㅠㅠ 갠 좋은 친구야 ㅠㅠ 나한테 화났어?

A
오늘은 그만 하는게 좋을꺼 같다.

SCENE#12. C의 집 앞.

C
오늘 재밌었어. 내일도 만날꺼지?

A
(지친듯이 끄덕) 들어가.

SCENE#13. 자취방

A가 들어온다. B는 디아3 플레이중. A는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한다.

A
내가 처음에는 못생긴 여자를 예쁘게 하는 것보단
멍청한 여자를 똑똑하게 하는 게 쉬울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 같애.
그러니까 걔는... 너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서...
이쯤에서 돌려주는게..... 낫겠다싶다. 계정은 그냥 너 가지고.

B 컴퓨터 앞에서 A쪽으로 걸어온다.

A는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을 켜지만 안켜진다. 여러번 시도한다

B
(기지개를 켜면서 피곤한듯이) 아 겨우 잠았네.

A가 켜려고 시도하는 가스레인지에 바람을 분다. 불이 붙는다. 물을 마시러 간다

B
아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A
(한참 쳐다보다가)
아니

B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고개를 끄덕임)
아 그리고 라면 끓일꺼면 두개 끓여

SCENE#13. 씨11의 공원

A와 C 벤치에 앉아있고 C는 기대되는 눈으로 A를 바라보고 있다

A
오늘은 '동정심에의 호소' 로 시작해보자.

C
(끄덕끄덕)

A
어떤 사람이 입사 면접을 보러갔어.
그래서 면접관이 왜 우리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하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한테 아내와 여섯 자녀가 있는데 처자식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겨울은 닥쳐오고 있는데 연탄은 없고 집은 판자집이라고 대답을 하는거야.

insert: 한 남자가 면접보는 씨. 울면서 면접을 보고 있다

C
(을면서) 너무 불쌍해.

A
그래 그건 불쌍해. 하지만 그건 비논리적이야.
그건 회사가 그 사람을 뽑아야하는 이유가 아니라구.
단지 면접관의 동정심에 호소한거지.

insert: 면접관들도 운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력서에 불합격 도장을 찍는다

C
손수건 있어?

A
(손수건을 건네준다)
다음으로 '그릇된 유추'에 대해 말해볼게.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봐.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한다.
의사들도 수술하는 동안 엑스레이를 보고 목수들도 집을 지을 때 청사진을 보기 때문이다.

insert: 시험중인 강의실. 한 학생이 교과서를 펴고 시험을 본다.

C
흠. 요즘 들은 얘기중에 가장 멋진 생각인데.

A
그건 틀린 생각이야. 넌 그러면 안돼.

insert: 조교가 시험지를 찢어버린다

A
의사랑 목수는 시험 보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야.

C
그래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난 좋아.

A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잠깐 커피 좀 마실래?

A와 C 캔커피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있다.

A
다음 오류는 '우물에 독 풀기' 라는 거야.

C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름은 제일 잘 지었다.

A
두 사람이 토론을 하려고해. 첫째 남자가 일어나서 청중들한테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흉악한 거짓말쟁이다. 그가 말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된다.

insert: 첫째 남자의 발언 장면

A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C
그건 공평하지 않아.

A
(의아한 표정)

C
그건 불공평해. 두번째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잖아.

A
(기쁨에 가득차서)
맞았어. 바로 그거야.

insert: 토론 하던 사람들 모두 환호한다

A
백퍼센트 맞았어. 첫 번째 남자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전에 우물에 독을 푼거야.
상대방이 말도 하기 전에 기회를 빼앗은 거지. 너가 진짜 자랑스럽다.

C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표정) 뭐 그정도야

A
봐봐. 별로 어렵지 않아. 다만 생각을 좀 하면 되는거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해보자.

(벤치에서 스터디하는 모습. A와 C는 1배속. 주위 사람들은 고배속. 낮밤도 바뀐다.)

SCENE#14. 자취방

A 침대에 털썩 눕는다.

SCENE#15. 미래의 B 의 집. (씬2 에서 이어짐)

A가 집에 들어온다. C가 기다리고 있다. 저녁을 먹는다. 자기전에 키스를 한다

SCENE#16. 레스토랑

C
왜 오늘은 여기서 만난거야?

A
오늘은 논리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꺼야.

C
(아쉬운듯)
벌써 다 배운거야?

A
우리가 만난지 오늘로 5일째야.
그 동안 매일 산책도 같이하고 영화도 같이보고 밥도 같이 먹었어.
우리는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건 분명해.

C
성급한 일반화야. 겨우 다섯번 데이트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A
(재밋어서 웃는다)
다섯 번의 데이트로도 충분해.
케이크의 맛을 알기 위해서 케이크를 다 먹어 볼 필요는 없어.

C
그건 그릇된 유추야. 나는 케이크가 아니야. 여자지.

A
(조금 덜 유쾌하게 웃고 헛기침을 한다.)
플리, 난 너를 사랑해. 난 나의 딸이자 태양이고 별이야.
너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너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면
난 물 한모금 넘기지 못할것이고 비틀거리며 삶을 방황하는 폐인이 되고 말거야.

C
이번엔 동정심에의 호소네.

A
(개망한 표정. 다시 침착하고)
그래 C. 넌 정말로 잘 배웠구나.

C
물론이지.

A
그럼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지?

C
너지.

A
그래, 그렇다면 넌 내게 빛을 지고 있는거야.
너가 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넌 오류에 대해 배울 수 없었을 꺼야.

C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이야. 그건 모르는 일이지.

A
(절망해서)
논리학에서 나오는 오류는 어디서나 통하는게 아니야.
강의실 안에서나 써먹는 거라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실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

C
그건 단순화의 오류야.

A
(흥분해서)
그래, 내 애인이 되 즐겨야 말꺼야?

C
난 못해.

A
왜, 도대체 왜

C
오늘 오후에 B의 애인이 되주기로 약속했거든.

A

(일어서서)

B?! 개가?! 하. 갠 나하고 분명 약속, 아니 거래까지 했는데.

C. 넌 그 놈이랑 사귀면 안되. 갠 거짓말쟁이에다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라구.

C

우물에 독을 푸는구나. 그리고 소리 지르지마. 난 소리 지르는 것도 오류라고 생각해.

A

(간신히 진정해서 앉는다)

좋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나를 봐.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누적평점은 4.28이야.

법조인으로써 장래도 보장돼있어. B를 봐. 학교 두번에다가 디아에만 빠져있지.

왜 내가 아니라 B를 선택했는지 단 한가지라도 논리적인 이유를 말해볼 수 있겠어?

C

물론이지.

B는 디아3 계정을 가지고 있거든.

SCENE#17. 중앙전산원

A 과제 중이다. 과제를 하다가 잠깐 앞 쪽을 본다. B와 C가 디아3를 하고 있다. A 허탈하게 웃는다. B와 C 행복해보인다.